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 심인법을 계승한 108조사의 수행공덕을 기리며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다례재에서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자들이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간화선수행 2박3일 용맹정진에 나선 불자들을 둘러보며 죽비로 직접 경책하는 진제 스님.

해운정사 108조사 수행공덕 찬탄

[현장] 제5회 선종본산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섭존자, 아난존자, 상나화수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인법을 계승한 108명의 조사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하얀 목련처럼 청정하게 한복을 입은 다인들이 차를 들고 나와 불심인조사전 앞에 차를 올렸다. 밤을 지새우며 화두를 들고 참구한 불자들이 회색 법복을 입고 다례대재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서 합장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리치는 죽비로 자신을 다 잡으며 하루 이틀 밤을 지새운 그들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번졌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와 사단법인 진제선세계화회는 10월 22일 제5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해운정사 경내 불심인조사전에서 봉행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부처님의 제79대 법손인 진제 스님이 부처님 이후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며 면면히 이어온 불조 108명의 조사에게 차 공양을 올려 공덕을 찬탄하는 자리다. 매년 이어온 다례대재는 지난해부터 지역민에게 세계 각국의 찻자리로 차향을 나누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축제한마당으로 회향되고 있다.

특히 다례대재 전, 2박3일 동안 사부대중이 모여 용맹정진하며 조사들의 심인법을 이어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결의로 정진했다. 해운정사 선방에서 진행된 용맹정진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등 154명이 동참했으며, 정진 전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화두를 내려주고 참구하는 법을 상세히 일러줘 사부대중은 정진의 열기를 더했다. 또 밤에는 지친 대중을 위해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각 선방을 돌며 경책하고 화두를 놓치지 않기를 재차 강조했다.

용맹정진은 오직 입선과 예불로 진행되며 잠을 자지 않고 모든 대중이 화두만 붙잡는, 말 그대로 '철야용맹정진'이다. 용맹정진에 동참한 불자들은 "정진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더욱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연수 불자는 "종정스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화두를 참구하고 챙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삶속에서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용맹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매순간 챙기려고 집중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스님과 도반들이 있어 힘내서 회향했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장예람 불자는 "종정스님께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고 참구하라셨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했는데 죽기 전에 꼭 알고 싶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명종으로 시작을 알리자 진제 스님이 헌화하고 내빈들도 뒤를 이어 헌화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헌화에는 조계종 교

부처님 심인법 계승한 조사 기려
간화선으로 위법망구 정진 다짐
사부대중 2박3일간 용맹정진해
"무명서 중생 제도한 뜻 따르자"

육원장 진우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해운정사 주지 능혜 스님, 동화사 국장스님들이 참여했으며 재가 내빈은 서병수 前부산시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불조의 뜻을 되새겼다. 내빈들이 헌화 및 헌다하는 동안 경내 마당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 합장하고 마음을 모았다.

다례대재는 축사와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별히 진제 스님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표창하며 그간 조계종 종무행정 안정을 위해 노력 봉사한 공로를 치하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인 심인법이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 가닥 오롯이 남아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 귀하고 귀한 부처님의 법이 영구히 전승되어야 할 것이라. 이에 모든 수행자들은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기상으로 위법망구(爲法忘軀)하여 불철주야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간화선 수행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을 확신한다. 불철주야 정진하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계승승하는 것"이라며 "사부대중은 심인법을 밝히고 전하여 무명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과 조사님을 기리고 마음 닦아 게으름 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前부산시장은 "이렇게 좋은 가을날 다례대재를 통해 불조의 뜻을 기리게 되어 기쁘다"며 "해운정사로 말미암아 부산은 물론 전 세계에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 해운정사가 그 중심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다회 및 경로잔치도 열렸다. 다회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차 문화를 전하는 찻자리로 진행됐다. 한국 다회는 발효차와 녹차로 맑고 청정함을 전달했으며, 중국 다회에서는 보이차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다. 일본은 전통차 다례법을 선보여 미학의 절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동참한 지역시민들은 선사들의 가르침을 지역민에게 베풀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김나은(해운대구 · 45) 씨는 "어머님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왔는데 이렇게 종정스님의 법문도 듣고 좋은 찻자리에서 각국의 차를 마시는 문화를 경험해서 좋았다"며 "간화선수행이 사실 좀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소정(수영구 · 66) 씨는 "친구와 함께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 몰랐다"며 "불조에 대한 뜻도 다시 알게 되고 다음 기회에 참선수행을 꼭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정사는 참선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참선불교대학을 운영 중이며 현재 3기를 모집 중이다. 참선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교시는 강의, 2교시는 참선 참구로 이어진다. 장소는 해운정사 대불전이며 교과목은 참선입문교육, 불교기본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원각경, 선문촬요와 진제 스님의 저서 석인대소이다. 총 3년 과정이며 접수는 해운정사 종무소로 하면 된다. (051)746-2256